

# 메타버스게임 인재 등 육성... 내년 특성화고 1.2만명 선발

23일부터 내년도 선발전형 실시  
68교 중 43교는 전국 단위 모집  
미래산업 기술 39개 학과 신설  
자기계발비 최대 100만원 지원

서울 관내 특성화고등학교 68개교에서 오는 23일 미래인재전형, 학교별전형, 일반전형 등으로 신입생 선발전형을 시작한다.

7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2022학년도 특성화고등학교 신입생 선발전형이 23일부터 시작된다. 2022학년도에는 서울 관내 특성화고 68개교에서 총 1만2112명을 선발한다.

특성화고등학교 신입생 선발전형은 미래인재전형, 학교별 특별전형 등 특별전형과 일반전형으로 나뉘어 실시된다. 특별전形的 원서접수 기간은 23일과 24일이다. 일반전형 원서접수 기간은 11월 30일과 12월 1일 이뤄진다.

◆43교는 전국 단위 모집...3개 학교는 기숙사 운영

특성화고 특별전형 중 미래인재전형은 출결, 봉사활동, 학업계획서 및 자기소개서, 심층면접으로 평가가 진행된다. 취업과 창업 의지가 명확하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을 선발한다.

특성화고 일반전형은 중학교 고입 석차연명부의 개인별 석차백분율을 기준으로 선발하며, 특별전형에서 탈락한 학생도 다시 한번 지원할 수 있다.

서울 소재 68개 특성화고 중 43교는 전국 단위 모집을 한다. 이중 경기 기계공고, 서울관광고, 서울영상고 등 3개 학교는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서울 외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로 급변하는 산업 기술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 컴퓨터과, 메타버스게임과, 콘텐츠크리에이터과, 반려동물케어과 등 39개 학과를 신설해 미래 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기술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입학을 희망하는 특성화고에 관한 정보는 각 학교의 누리집 또는 특성화고 입학·취업 누리집 하이잡에서 확인할 수 있다. 카카오톡에서 '서울시교육청 특성화고'를 검색하여 추가하면 학교별 학과 정보 제공 및 입학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최대 100만원 지원...70여 대학, 특성화고 출신 우대

특성화고를 진학하면 서울시교육청의 드림성장지원 바우처를 통해 국가기술 자격증 취득, 어학 공인인증 시험 준비금 등 자기계발에 필요한 비용을 매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공무원·공공기관 고졸인재 채용도 확대되고 있다. 국가직 공무원

지역인재 9급은 총 선발인원의 20%, 지방직 9급 기술직은 선발인원의 30%, 서울시교육청 지방직 9급 기술직은 50%까지 확대 채용할 계획이다.

특성화고 졸업생의 선취업 후학습을 지원하는 정책도 확대되고 있어 전국적으로 70여개 대학에서 특성화고를 졸업한 재직자 대상으로 특별전형을 확대해 선발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이조복 진로직업교육과 취업지원팀 과장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기술분야로 한정돼 있던 고졸 인재 채용을 모든 분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지방공기업 고졸 채용 목표제가 신규 도입 추진돼 고졸채용이 확대될 예정이고 기업 경영 평가 시 고졸 채용 성과가 평가 지표에 포함돼 채용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덕성여대 학생들  
가을 단풍아래 졸업사진 '찰칵'

덕성여대대학교가 코로나 확산 우려로 취소했던 학위수여식을 대신해 최근 캠퍼스를 개방해 가을 졸업생들에게 늦은 졸업사진 촬영 기회를 제공했다. 7일 덕성여대에 따르면 최근 대학 측의 캠퍼스 개방 공지에 따라 졸업생들이 1개 월여만에 다시 모교를 찾아 단풍 든 캠퍼스에서 졸업기념사진을 촬영했다. 기념촬영을 위한 개방일정은 지난달 29일과 30일, 지난 5-6일 등 2주간 총 4일 이뤄졌다. 촬영 당일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2시 등 3타임으로 나뉘어 개방됐으며, 시간별로 50명씩으로 세분해 방역수칙도 준수하면서 신청자 모두를 수용했다. 덕성여대 졸업예정 학생들이 캠퍼스 내 단풍과 함께 늦은 졸업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덕성여대

## 서울디지털대, 탐정 전문인재 양성 박사

특수교육재단·공인탐정협회  
업무교류 등 제휴협약 체결

서울디지털대학교는 한국특수교육재단·한국공인탐정협회와 지난 2일 서울디지털대에서 제휴 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협회 임직원 및 회원 중 서울디지털대 신·편입생에게 입학금 전액과 매 학기 수업료 감면 장학 혜택 제공 ▲협회 임직원 직무능력 향상과 자기계발(학위 및 다양한 자격증 취득)기회 제공 ▲대학과 협회 상호간 우호 증진을 위한 업무 교류 등을 진행한다.

이병도 탐정전문교육연구소는 "서울디지털대 탐정전공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로봇과 인공지능으로 대체할 수 없는 정보조사 전문가인 탐정에 대해 높은 관심을 받는 상황을 맞아 탐정에 대한 학술적 지식과 전문 자격증, 실무를 접목해 탐정 인재

양성의 출발점이 되기 위해 국내 사 이버대학 최초로 개설한 것"이라며 "탐정 직무능력 강화와 국제교류에 힘써온 한국공인탐정협회와 우리 대학이 함께 노력해 대한민국 탐정 교육기관의 표본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하금석 한국특수교육재단·한국공인탐정협회 상임회장은 "한국공인탐정협회는 민간보안 업무의 중요성이 부각되며 탐정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설립한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육 기관으로 국제적인 탐정 보안 조직이 구성돼있는 유일한 단체"라며 "서울디지털대와의 협약으로 우리 기관에서 배출한 'PIA사설탐정사' 자격 취득 전문 인력이 서울디지털대 탐정전공에서 학업을 이어나가 학술적 발전과 함께 군, 경찰, 법조,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직업인으로 양성되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 건국대, 테니스 권순우 선수 훈련 지원

교내 코트서 훈련 배려

건국대학교가 한국 남자 테니스 애 이스 권순우(24·당진시청)에게 학교 내 훈련코트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9월 아스타나오픈 우승으로 한국 남자 테니스 단식 선수로 18년만에 ATP(남성프로테니스)투어 대회 정상에 오른 권순우는 주로 미국 마이애미에서 훈련하면서 세계 각지에서 열리는 ATP투어에 참가해왔다.

하지만 짧은 기간 서울 집에 머물며 국내 체류시 마땅한 훈련장소를 찾는 데 어려움이 컸다. 이런 가운데 건국대는 권순우 선수의 상황을 알고 서울 올림픽로 대외 테니스단 훈련코트를 대학선수들과 함께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배려하기로 했다. 국가대표팀 코치이기도 한 김영준 건국대 테니스단 감독이 다리를 놓았다.

권순우는 지난 4일 건국대를 방문



권순우 선수(오른쪽)가 4일 건국대 서울캠퍼스를 방문해 전영재 건국대 총장에게 자신의 사인 국가대표 유니폼을 전달하고 있다.

해 전영재 총장, 유자는 학교법인 이사장을 만나 고마움을 표했다. 권순우 선수는 "졸업동문은 아닌데 이렇게 배려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권순우는 2016학번으로 건국대 체육교육학과에 입학했지만 퓨처스투어에 전념하게 되면서 점차 투어와 학업을 정상적으로 병행하기 어려워졌고 2018년 어렵게 자퇴를 결정한 바 있다.

/이현진 기자

인천대

중소 혁신바우처 수행기관 선정

인천대학교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인천대 산학협력단은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사업 기술지원분야 운영기관인 한국산학연협회와 최근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수행기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내년부터 기술지원 분야의 시스템 및 시설구축 등 7개 지원프로그램 수행기관으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에 특성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컨설팅(6개 지원프로그램)▲기술지원(11개 지원 프로그램)▲마케팅(3개 지원 프로그램) 등 3개 분야 20개 지원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중소기업이 지원 분야별 수행기관에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1000만~2000만원 지원한다. 최대 지원금은 기업당 5000만원이다.

사업을 통해 지원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신청해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인천대의 지원프로그램 서비스를 받으면 된다.

/이현진 기자

상명대 게임전공

SW교육 앱 활용 졸업전시회

상명대학교 융합공과대학 SW 융합학부 게임전공이 학생들의 SW 교육을 위해 개발한 애플리케이션 '최고의 상명'을 통해 졸업작품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졸업을 앞둔 33명의 학생은 8개 팀으로 나눠 4년간 배운 전공적 지식을 바탕으로 게임을 개발했다. 각 팀은 게임 기획과 시나리오 구성, 그래픽 작업, 프로그래밍 등의 과정을 통해 게임을 개발했으며, 이렇게 개발된 게임을 소개하는 영상을 제작했다. '상명'을 통해 소개한다. 이 애플리케이션은 작품 감상뿐 아니라 작품에 대한 의견도 공유할 수 있다. 이번 게임전공의 졸업작품전시회를 감상하려면 앱스토어를 통해 '최고의 상명'을 내려받으면 확인할 수 있다. /이현진 기자

호서대 건축학과

대한건축학회 '우수상' 수상

호서대학교는 공과대학 건축학과 5학년 학생들이 '대한건축학회 2021 학생작품전'에서 건축학회장상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

학생 김현우 씨의 '스쿨 프롬 바이오피리아(School from biophilia)' 작품은 학교부지 중 현재 나대지로 남아있는 경기도 성남시 판교동에 위치한 부지를 대상으로 삼아 미래의 학교에 대한 방향성을 제안했다. 김씨는 이 작품에서 인공물의 대표적 형태인 사각형의 형태에 자연으로부터 유래한 형태를 결합 및 관통시키면서 비워진 공간에 자연을 채워 넣었다고 설명했다.

학생 김윤열 씨의 작품은 웨이브 더 패러다임(Wave the paradigm)으로, 서촌의 정체성과 역사를 소개하는 문화시설을 계획했다.

'대한건축학회 2021 학생작품전'은 지난달 29일 여수 엑스포에서 현장전시가 이뤄졌으며, 현재 온라인 전시를 하고 있다. /이현진 기자